

테러인식 척도의 확인적요인분석

정 종 운* · 곽 대 경** · 심 혜 인***

〈요 약〉

이 연구는 테러 인식에 대한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한국형 테러인식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척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오호 외(2016) 「국회청사 보안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7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테러인식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테러우려 3문항, 테러발생인식 5문항, 테러대응 3문항, 테러대비장치 3문항의 요인별 모형적합도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도 기준 값을 상회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테러우려가 평균분산추출값의 기준 값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외의 값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충하고자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증한 테러인식문항을 포함하여 테러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테러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개발되어 측정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테러 우려, 테러발생인식, 테러대응, 테러대비장치, 확인적 요인분석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과정 (제1저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박사과정 (공동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I. 서 론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사건이 2015년에 일어나면서, 테러대상자에 한국인 20명을 포함하였으며,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IS가 지정하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국제테러 뿐만 아니라 북한의 테러위협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테러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테러의 대비책으로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추진되었던 「테러방지법」 법안이 통과 된 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수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테러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테러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9·11 테러 사건과 같은 물리적인 테러 이외에도 사이버 테러, 드론테러 등 신종 테러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외로운 늑대’라고 지칭하는 전문적인 테러단체의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독자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대테러 센터, 2019). 이들은 특정 배후 세력이 없으며,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원한이나 분노, 국가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빈부 격차의 양극화 현상 등의 이유에 의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반감을 갖고 테러를 감행한다. 그러나 조직이나 단체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테러 감행 시점, 방식, 정보 수집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2017년 발생한 Y대 텀블러 폭발사고가 ‘외로운 늑대’의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Y대 대학원생 김모(26)씨가 지도교수를 위해할 목적으로 텀블러로 폭발성 물건을 만들어 지도교수 연구실에 걸어두어 폭발한 사건²⁾이다. 이로 인해 무장한 경찰특공대 및 폭발분석물 팀이 출동하였으며, 교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특정 사건 이외에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대두되었던 것은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한 반응이었다. 난민의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은 200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신청난민이 16,173명이었다. 2015년부터 예멘은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의 내전으로 인해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난민들은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동을 하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은 2017년 5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561명(남성 504명, 여성 4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를 알게 된 국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며 71만 4,800여명이 동의를 하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한 이유에는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테러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파리 도시의 주요 6곳에서 자살폭탄테러, 총격테러, 인질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123명의 사망자와 349명의 부상자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테러의 주범과 동료들 중 IS 조직원 일부가 난민으로 위장하여 잠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럽전역에 반이슬람, 반난민 정서가 심화되었으며,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난민수용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외의 사례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및 테러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6년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41%, 개인에 의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³⁾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기사에는 이러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1) 대테러센터)기관소개)대테러용어)외로운늑대. (최종검색일 : 2019.11.13.).

<http://www.nctc.go.kr/nctc/Introduction/terms.do#faq-open>

2) 뉴시스. 2018.04.25. ‘텀블러 폭발’ 연세대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 (최종검색일: 2019. 11. 13)

3) Support The Guardian, 2018.06.31. “Number of children worrying about war and terror rises sharply” (최종검색일: 2019. 11. 13).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8/jan/31/children-worrying-about-war-terror-rises-sharply-uk>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가 없으며, 일부 연구진들에 의해서 테러에 대한 두려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테러관련 연구에서는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테러인식을 측정하고 있는 척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대체로 단일 문항으로 테러에 대한 두려움 또는 노출 가능성(한성일·황의갑, 2016; 이민영, 2018; 강부순, 2019)을 묻는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대성(2004)의 테러인식문항을 기반으로 하여 박현영(2010), 최오호 외(2016)의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된 테러인식 척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오호 외(2016)의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에 대하여 탐색적 확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테러인식에 대한 척도인 테러우려, 테러발생인식, 테러대응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으나, 테러대비장치요인은 새로 신설되었기에 이 척도의 활용에 대한 통계적인 적합성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테러인식 척도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테러의 개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의1에 따르면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항의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를 말하며, 항공기, 선박, 차량 등에서 발생하거나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 핵물질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통칭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테러라고 보아, 범죄와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테러단체와 범죄조직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백수용, 2019: 223-2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의 2에서는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범죄단체⁴⁾와 「국가보안법」 제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⁵⁾와 구별된다. 최근까지 지정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지정된 테러단체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탈레반 등과 관련된 81개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만중, 2018).

테러는 목적, 행위자(주체), 공격대상, 공격수단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심리적·환경구조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가 있으며, 민족적 영웅, 종교적 순교자, 정치적 혁명가, 범죄자 등 행위의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테러가 있다. 납치 또는 살해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항공, 선박 등의 시설 장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특정 지역이나 사이버 공간 등과 같이 특정 공격 대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테러가 있다. 폭발물로 테러를 하는 경우, 총, 차량, 항공, 선박 등의 무기 또는 장비로 테러를 하는 경우, 생화학을 비롯한 군사적 무기를 활용하여 공격하는 테러 등의 공격 수단에 따라 테러를 분류할 수가 있다(강병진, 2012: 15-17).

2. 테러 인식조사 척도를 활용한 선행연구

테러에 관한 연구로는 보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 발생, 대응 등의 인식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테러 관련 인식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측정도구를 사용한 실증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대성(2004)의 연구에서는 테러의 인식에 대해서 ‘테러의 이미지’, ‘테러의 대상 및 유형’, ‘테러대책의 만족도 및 필요성’, ‘테러행위의 목적’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테러에 대한 이미지는 테러사건을 접하게 된 경로, 한국의 테러로 기억되는

4) 범죄단체의 정의에 대하여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동법에 규정된 강력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집단을 말한다.

5) 「국가보안법」 제2조 정부를 찬양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건, 테러에 대한 두려움 및 심각성을 중심으로 보았다. 테러의 대상 및 유형으로는 어떤 국가 또는 조직이 한국의 테러 가능성이 높은지, 테러유형별 발생 가능성 등의 위험성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테러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테러에 대한 정부정책과 기관별 공조체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테러대책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테러방지법, 대테러전담기구 설치 등의 필요성 등을 측정하였다. 테러행위의 목적은 한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에 대하여 사건별 목적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민족적, 사회적 등의 측면에서 목적성을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대성(2004)의 테러 인식 척도는 5점 리커트 점수로 측정하는 문항과 각 항목의 순위 또는 중요도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박현영(2010)의 연구에서 재구성하여 ‘테러우려’ 4문항, ‘테러의 발생인식’ 7문항, ‘테러대응’ 4문항으로 총 15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마찬가지로 김효준 외(2011) 연구에서도 이대성(2004)의 테러인식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총15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특수경비원의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테러인식 척도 요인별 신뢰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박현영(2010)연구와 달리 김효준 외(2011) 연구에서는 수정된 설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테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유재두(2013) 연구에서는 김용현·박영주(2011)의 척도를 수정하여 ‘테러상황인식’ 2문항과 ‘테러관심정도’ 2문항, ‘군·정부 신뢰’ 3문항으로 요인을 각각 구성하였으며, 이만중·김강녕(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항공기, 폭탄, 생화학, 요인·인질, 핵, 사이버 등에 대한 구체적 테러 가능성 인식요인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제로 발생했던 테러사건을 토대로 하여 ‘과거 테러에 대한 인식’ 6문항과 ‘최근 테러에 대한 인식’ 2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김종열(2013)은 이대성(2004), 최진혁(2010), 유인일(2011)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테러리즘의 발생가능성 5문항, 발생원인 6문항, 발생장소 7문항, 행위주체 5문항, 발생유형 7문항으로 ‘테러리즘 발생인식’요인을 구성하였으며, 테러의 대응 대책 7문항, 주무기관 10문항으로 ‘테러리즘 대응인식’요인을 구성하였다.

정부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성일·

황의갑(2016)은 한국과 미국의 시민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테러에 대한 우려 변수로는 “테러 공격에 대해 얼마나 우려 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최우호 외(2016) 연구에서는 박현영(2010)의 척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테러우려’요인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문항을 삭제하였고, ‘테러발생인식’요인의 “북한에 의한”, “이슬람 과격 단체” “제3세력에 의한” 등의 테러행위자의 구체적인 명시를 삭제하고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로 축소하였다. 또한 “핵테러” 발생에 대한 내용은 “차량을 이용한 테러”로 수정하였다. ‘테러대응’요인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각 기관의 공조체제”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삭제하였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문항은 2016년 테러방지법⁶⁾이 통과하였기 때문에 삭제하고 “야간촬영 CCTV의 필요성”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덧붙여 차량테러, 폭탄테러, 생화학테러 등을 대비한 테러대비 장비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러대비장치”요인을 척도에 추가하였다.

이민영(2018)의 연구에서는 기사로 접한 테러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위험인식을 측정하였는데, 테러에 대한 심리적 거리로는 Montello(1991)와 황화철(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사의 테러 사건이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느껴진다”, “나와 가까운 곳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 “(테러)피해자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 느껴진다”의 3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테러위험인식에 대해서는 Cho 외(2013)과 이민영(2017)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금년 중 귀하가 테러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를 0에서 100점 사이의 수치를 측정하였다.

일반인들의 공포감 또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테러리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강부순(2019)의 연구에서는 메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의 국가테러 데이터베이스(Global Terrorism Database)에서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 협박, 강압 등을 비국가 행위집단이 야기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두려움을 ‘테러리즘 공포’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테러리즘 공포에 대한 측정도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측정문항은 “테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러 공격에 대해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된 설문 문항이다.

테러의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는 테러에 대한 발생가능성, 위협의 정도, 두려움의 정도 등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와(한성일·황의갑, 2016; 이민영, 2018; 강부순, 2019) 요인별 여러 문항의 척도로 구성된 연구는 이대성(2004)에서 개발된 척도를 기반으로 박현영(2010), 김효준 외(2011), 김종열(2013), 최오호 외(2016) 등의 연구에서 조금씩 발전되어 왔다. 테러에 대한 법적 제도의 마련 또는 조사 특성 기관에 따라 설문 문항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개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단, 각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실시되는데 반해 확인적요인분석으로 척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없어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전되어 최근에 조사된 최오호 외(2016)의 연구 자료의 테러인식에 대한 척도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국회청사 보안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회의 구조물과 시설의 보안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수집된 176명에 관한 이차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박현영(2010)의 연구에서 테러인식에 대하여 테러우려, 테러발생인식, 테러대응으로 하위요인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오호 외(2016) 연구에서는 테러대비장치의 하위요인을 추가로 구성한 내용을 연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테러인식의 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결과를 SPSS, AMOS 22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지표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3. 변수설명

최오호 외(2016) 연구의 테러인식의 척도는 테러우려요인 3문항, 테러발생인식요인 5문항, 테러대응요인 3문항, 테러대비장치요인 3문항으로 총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하위요인별 세부항목으로는 <표 1>과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테러우려 요인 Cronbach α =0.679, 테러발생인식 요인 Cronbach α =0.917, 테러대응요인 Cronbach α =0.805, 테러대비장치 Cronbach α =0.892로 각각 0.6을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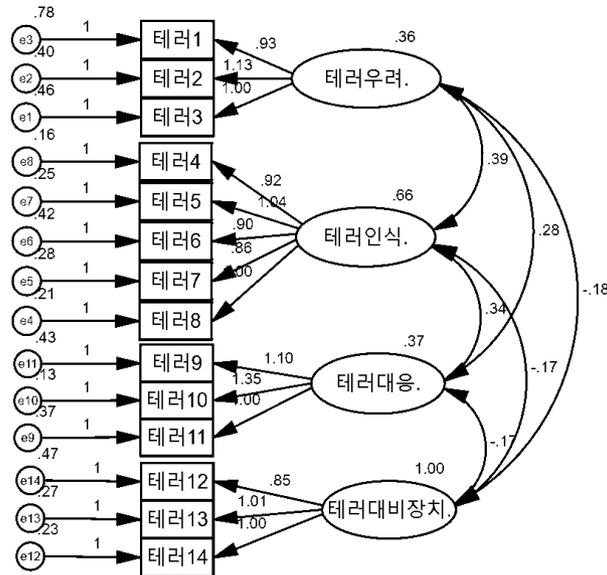
<표 1> 테러인식 척도 요인별 세부문항

하위요인	세부문항	
테러 우려	테러1	나는 국외의 테러 소식을 접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
	테러2	국회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테러3	나는 테러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테러 발생 인식	테러4	국회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테러5	국회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테러6	국회에서 생화학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테러7	국회에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테러8	국회에서 요인·인질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테러 대응	테러9	국회 내 테러 방지와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테러10	국회의 테러 방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테러11	국회 테러 방지를 위해 야간 촬영 CCTV가 필요하다.
테러 대비 장치	테러12	국회는 차량을 이용한 테러를 대비한 장치(ex: 로드 블럭, 블라드 등)가 잘 되어 있다.
	테러13	국회는 폭탄 테러를 대비한 장치(ex: 방폭가방, 방폭 담요 등)가 잘 되어 있다.
	테러14	국회는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장치(ex: 방폭가방, 액체독성물질 감별장치 등)가 잘 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1. 테러인식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최오호 외(2016) 연구에서 테러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테러우려, 테러발생인식, 테러 대응, 테러 대비 장치의 척도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도식화한 결과 값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테러인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테러인식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세부 결과 값은 <표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자유도(χ^2/df)은 1.601로 2이하일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59로 나타나 0.05이상과 0.1이하 사이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모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값이 2이하인 경우에 RMR값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0.045로 나타나 적합한 모델로 볼 수 있다. GFI(Goodness Fit Index)=.915, CFI(Comparative Fit Index)=.971,

NFI(Normed Fit Index)=.926, IFI(Incremental Fit Index)=.0971, TLI(Tucker Lewis Index)=.962로 0.9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chi^2(p)$ 만을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모델적합도로 나타나 있다. 또한 표준화회귀계수(SRW: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를 확인한 결과 테러우려의 하위요인 1을 제외하고는 0.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우려의 하위요인 1도 0.5 이상이므로 제거하지 않고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표 2〉 테러인식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variables		R.W.	S.E.	C.R.	S.R.W
테러우려	테러1	0.934	.155	6.043	.537
	테러2	1.131	.147	7.722	.730
	테러3	1.000	-	-	.662
테러 발생인식	테러4	.916	.058	15.868	.880
	테러5	1.043	.068	15.285	.863
	테러6	.900	.075	11.936	.746
	테러7	.857	.857	13.293	.797
테러대응	테러8	1.000	-	-	.871
	테러9	1.101	.125	8.824	.715
	테러10	1.350	.131	10.330	.915
테러대비	테러11	1.000	-	-	.710
	테러12	.851	.851	12.631	.780
	테러13	1.010	.068	14.869	.890
	테러14	1.000	-	-	.902

$\chi^2(p)$: 113.641(001), χ^2/df : 1.601, RMSEA: .059, RMR: .045,
GFI: .915, CFI: .971, NFI: .926, IFI: .971, TLI: .962

〈표 3〉 테러인식척도의 공분산과 상관계수

variables	Cova.	S.E.	Corr.
테러우려 ↔ 테러발생인식	.395	.065	.809
테러우려 ↔ 테러대응	.279	.052	.762
테러우려 ↔ 테러대비장치	-.185	.061	-.308
테러발생인식 ↔ 테러대응	.343	.058	.692
테러발생인식 ↔ 테러대비장치	-.169	.069	-.209
테러대응 ↔ 테러대비장치	-.170	.055	-.279

<표 3>은 테러인식척도의 잠재변수들 간의 공분산(공분산의 표준오차 포함)과 상관관계수 값을 나타내었으며, <표 4>는 측정변수들 간의 측정오차의 분산 값이다. 이러한 값을 바탕으로 하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계산에 활용하였다.

<표 4> 테러인식척도의 측정오차의 분산값

measurement error		Var.	S.E.	C.R.
테러우려	테러1	.776	.091	8.503
	테러2	.405	.061	6.686
	테러3	.462	.061	7.632
테러 발생인식	테러4	.161	.023	6.939
	테러5	.246	.034	7.314
	테러6	.424	.050	8.487
	테러7	.277	.034	8.143
테러대응	테러8	.210	.029	7.150
	테러9	.431	.054	7.936
	테러10	.133	.040	6.939
테러 대비장치	테러11	.365	.046	7.980
	테러12	.466	.060	7.778
	테러13	.267	.054	4.923
	테러14	.229	.051	4.452

평균분산추출 값은 50% 이상의 설명력을 가져야하기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0.5이상으로 상회하여야 하며, 그 값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AVE = \frac{\sum \text{표준화}\lambda^2}{\sum \text{표준화}\lambda^2 + \sum \text{오차계수}}$$

개념 신뢰도인 CR(Construct Reliability)값은 0.7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C.R. = \frac{(\sum \text{표준화}\lambda)^2}{(\sum \text{표준화}\lambda)^2 + \sum \text{오차계수}}$$

위의 계산식으로 테러 요인별 AVE값과 CR값을 계산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테러인식척도의 상관계수 및 AVE값과 CR값

variables	테러 우려	테러 발생인식	테러 대응	테러 대비장치	AVE	CR
테러우려(p^2)	1				0.434	0.694
테러 발생인식(p^2)	0.809 (0.654)**	1			0.725	0.929
테러대응(p^2)	0.762 (0.581)**	0.692 (0.479)**	1		0.666	0.855
테러 대비장치(p^2)	-0.308 (0.095)**	-0.209 (0.044)*	-0.279 (0.078)**	1	0.697	0.873

* $p < .05$, ** $p < .01$, *** $p < .001$

잠재변수별로 AVE값을 계산한 결과 테러발생인식, 테러대응, 테러대비장치는 0.5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테러우려의 경우에는 그 값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별로 CR값을 계산한 결과 테러발생인식, 테러대응, 테러대비장치는 0.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테러우려의 경우에는 0.694로 약 0.7수준에 해당하므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AVE값과 CR값을 토대로 하여 집중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별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표 5>에 제시된 상관계수 값을 살펴보면 상관계수의 제공값이 AVE값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테러발생인식, 테러대응, 테러대비장치의 AVE값은 상관계수 제공의 가장 큰 값이 0.654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테러우려의 경우에는 AVE값이 0.434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상관계수에 2를 더하고 2배 값에 표준오차를 곱하였을 때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표 6>과 같다. 계산된 각 해당 값은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6〉 판별타당도 검증

variables	Corr.	S.E.	(Corr.+2)*S.E.	(Corr.-2)*S.E.
테러우려 ↔ 테러발생인식	0.809	.065	0.183	-0.077
테러우려 ↔ 테러대응	0.762	.052	0.144	-0.064
테러우려 ↔ 테러대비장치	-0.308	.061	0.103	-0.141
테러발생인식 ↔ 테러대응	0.692	.058	0.156	-0.076
테러발생인식 ↔ 테러대비장치	-0.209	.069	0.124	-0.152
테러대응 ↔ 테러대비장치	-0.279	.055	0.095	-0.125

V. 결론

이 연구는 테러에 대하여 우려하는 정도, 테러 발생에 대한 인식의 정도, 테러에 대한 대응 강화의 정도, 테러 방지를 위한 대비 장치의 정도를 측정한 테러 인식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한국형 테러인식 척도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값을 바탕으로 평균분산추출 값과 개념 신뢰도 값을 활용하여 테러인식 척도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테러인식의 테러우려, 테러발생인식, 테러대응, 테러대비장치의 요인별 모형적합도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도 기준값을 상회하고 있지만, 잠재변수인 테러우려에서 한 개의 측정변수가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적정수준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고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평균분산추출값과 개념신뢰도 값으로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수 중 테러우려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이 기준값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외의 값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였다. 이를 보충하고자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척도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단일 문항으로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질문하는 것 이외에 척도로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문항은 이대성(2004)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검증과정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으며, 이론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잠재변수는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특정된 측정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정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는 연관이 없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다(Stapleton, 1997; Van Prooijen, Van der Kloot, 2001; 최창호, 유연우, 2017). 그러나 이대성(2004), 박현영(2010), 최오호 외(2016)에서 개발된 테러인식 척도의 경우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척도라고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적합한 척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세부값에서 테러우려의 잠재변수에 대한 표준화회귀계수 값과 평균분산추출값이 다른 잠재변수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외의 테러인식 연구 및 테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테러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기에 측정한 샘플의 수가 적었으며, 최오호 외(2016)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측정하는 수준으로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최오호 외(2016) 연구에서는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관련 직원과 방청 또는 참관 등으로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지 시행하였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인식에 대한 설문은 기존의 척도에서 축소판 버전을 사용하여 이 연구에서 제외하고 검토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테러 인식의 척도를 개발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주기로 수행하고 있는 ‘진국범죄피해조사’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과 마찬가지로 ‘테러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신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의 연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테러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여 두려워하는 테러의 유형 및 행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볼 수 있고, 직접적인 테러피해예방정책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민의 테러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이를 바탕으로 운영된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병진 (2012). 요인터러의 경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부순 (2019). 테러리즘 공포의 설명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현, 박영주 (2011). 한국의 안보상황 및 안보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65, 115-138.
- 김종열 (2013). 테러리즘 발생위험과 대응체계에 관한 한국 경찰관의 인식 및 함의.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준, 박현영, 안병수 (2011). 테러리즘에 대한 특수경비원의 인식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7(4), 273-285.
- 대테러센터 (2019). 주간테러동향. 2019. 2. 1. (금).
- 박현영 (2011). 특수경비원의 테러리즘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영 (2013). 테러발생에 대비한 한국 정치인 경호체제 구축방안.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수웅 (2019). 테러방지법상 테러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원광법학, 35, 221-237.
- 유인일 (2011). 뉴테러리즘 대응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재두 (2013). 북한 테러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연구. 한국테러학회보, 6, 72-96.
- 이대성 (2004).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만중 (2018). UN지정 테러단체의 활동추세와 대응방안. 대테러연구, 40, 124-186.
- 이만중, 김강녕 (2010).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3, 7-52.
- 이민영 (2017). 예시 사진과 집단주의 성향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1(6), 177-200.
- 이민영 (2018). 테러 뉴스의 서술 수준과 예시 유형이 테러 관련 인식과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1), 153-185.
- 최오호, 이주락, 오병일 (2017). 국회청사 테러 인식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12(2), 277-297.
- 최오호, 정종운, 조경연, 오병일 (2016). 국회청사 보안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 보안인식 및 방청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국회내부보고서.
- 최진혁 (2010). 산업보안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CPTED 기법의 유용성 분석.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창호, 유연우 (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

합연구, 15(10), 103-111.

한성일, 황의갑 (2016).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정부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9, 22-39.

황화철 (2009). 심리적거리가 지각된 위험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통과학연구*, 7(2), 63-87.

2. 해외문헌

Cho, H., Lee, J. S., & Lee, S. (2013). Optimistic bias about H1N1 flu: Testing the links between risk communication, optimistic bias, and self-protection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28(2), 146-158.

Montello, D. R. (1991). The measurement of cognitive distance: Method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1, 101-122.

Stapleton, C. D. (1997). Basic concepts and procedur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west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ustin, TX, January, 23-25.

Van Prooijen, J.-W., & Van der Kloot, W. A. (2001). Confirmatory analysis of exploratively obtained factor struct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1(5), 777-792.

3. 기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http://www.nctc.go.kr/nctc/index.do>

【Abstrac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the Awareness of Terrorism Scale in Korea

Chung, Jong-Woon · Kwack, Dae-Gyung · Sim, Hye-In

This study identifies a factor structure regarding the criterion of terror awareness by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tudy provides information whether the criterion fits in the analysis of terror awareness in Korea or not. Data of 176 public officials work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llected in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cu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Choi O-Ho and others, 2016) was used in the analysis. Study results showed the fit statistics of 3 questions regarding concern in terror, 5 questions regarding cognition of terror occurrence, 3 questions regarding countermeasure of terror, and 3 questions regarding equipments against terror satisfied the standard. Also, standard regression coefficient exceeded the standard and was shown to be fit. Concern in terror, as a latent variable, was below the standard value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However, focused validity was secured by obtaining other values fit.

This study proceeded distinct validation test to supplement data.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criterion level was fit. Thus, further survey should include questions that are appropriate to measure the awareness of terror based not only on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but also on questions of terror awareness tested in this study. Such development in surveys will support the means of data measurement.

Keywords: Terrorism Concern, Terrorism Recognition, Terrorism Response, Counter-terrorism Equip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